

광주 스테이크 합창, 재능 경연 대회 및 그노라움 합창단 제 2회 발표회

지난 8월 15일 광주 스테이크에서는 와드별 합창 경연 대회와 재능 경연 대회 및 그노라움 합창단 제 2회 정기 발표회가 있었다. 음악을 통한 영성을 발전시키는 데 힘을 기울이는 박 하천 스테이크 부장의 염원과 성도들의 힘이 아름다움으로 연출되는 훌륭한 모임이었다.

합창 부문과 재능 부문 모두 여수 와드가 최우수상을 차지하고 우수상에는 순천 지부가, 장려상에는 풍향 와드가 각각 차지하였다. 그리고 제 2회 정기 발표회를 가진 그노라움 합창단의 음악을 사랑하는 청소년들의 고운 목소리가 참석한 이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었다.□

광주 스테이크 청년, 소년 대회

* 청소년 대회

광주 스테이크는 지난 7월 29~31일까지 2박 3일 동안 전남 곡성군 목사동면에서 역원을 포함하여 약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대회를 스테이크 부장단 제2보좌인 최정주 부장을 감리로 “참으로 회개하고 신앙으로 생활하며 선행하고 쉬지 않고 계속하여 기도하는 자에게만 주께서 하나님의 신비를 알게 하시나니”(렐 26:22)를 주제로 한 이번 대회는 작년과는 달리 청소년 지도자가 직접 이끌고 모든 것을 청소년 스스로 해봄으로써 훌륭한 자질과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준 모임이었다.□



* 청년 대회

광주 스테이크 독신 성인들은 서울 중앙 농아 지부의 독신 성인들을 초대하여 8월 4~7일까지 3박 4일 동안 전남 보성군 울어면 자모부락에서 “우리가 어떠한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때에는 그것이 근거를 두고 있는 율법을 순종하였으므로 얻게 되는

것이니라”(교성 130:21)는 주제를 가지고 청년 대회를 가졌다.

특히 농아 지부 형제 자매들과 서로의 재능 및 사랑과 우정을 나눌 수 있어 참여한 형제 자매들의 마음 속에 깊은 의미를 심어 준 뜻깊은 대회가 되었다.□



교회 및 지역 소식

동 스테이크 초등협회 야영 대회

서울 동 스테이크에서는 지난 8월 14, 15일 양일간에 의정부 소재 "다락원 캠프"에서 초등협회 주최로 어린이 야영 대회를 가졌다.

8월 14일 오전 미아 와드에서 김병희 스테이크 부장의 감리하에 "우리는 친구"라는 주제로 대회를 시작하여 3개 대대로 나눠 대대별 모임을 가진 후 다락원에 입소했다.

교사 및 어린이 40명이 참석한 이 모임에서는 탐험 대회, 장기 자랑, 캠프 파이어 및 체육 대회 등 1박 2일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어린이와 교사들이 한마음으로 뭉쳐 즐거운 시간과 서로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모임이었다. 특히, 계곡 속에서 교사와 어린이들이 함께 어우러져 물장구치는 모습은 푸른 숲과 더불어 상국한 미소를 머금게 했고 저녁 시간 어린이들의 장기 자랑 또한 절로 박수가 치질 만큼 훌륭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다. 참으로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나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실감할 수 있는 모임이었다.



교사와 어린이들 모두가 한형제 자매같이 사랑을 나눌 수 있었고

주님의 사랑 또한 담백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으며, 우리가 모두 하나가 될 때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심을 확신할 수 있었다.

모두가 아쉬운 마음으로 내년에 의 모임을 다짐하면서 15일 오후 시상 및 폐회를 했다. □

강서 스테이크 초등협회 재능 발표회

서울 강서 스테이크 초등협회는 1987년 8월 22일에 스테이크 센터에서 제109회 초등협회 창립 기념일을 맞아 재능 발표회를 가졌다. 200여 명의 어린이와 부모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109년 전 하늘의 영감을 받아 이 조직을 구상하였던 오렐리아 로저스 자매님을 기억하면서 시온의 모든 어린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도록 가르쳐 주는 초등협회 조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1부 순서를 가졌다.



2부 순서로 지난 일 년간 담은 재능을 발표하였다. 노래, 연극, 기악 연주 및 무용 등을 발표할 때마다 박수와 웃음이 이어졌다. 어린이와 부모로 가득 찬 장내는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가 담긴 사랑의 분위기로 채워졌다. 말일성도 어린이들의 예술적인 무한한 재능을 엿볼 수 있었고, 즐거움을 함께 나눈 뜻깊은 시간이었다.

박 내정 스테이크 부장이 "뮤지컬 백설 공주"를 공연한 화곡 와드에 사랑상을, 무용을 한 신월 지부에 봉사상을, "새처럼 날으리"를 공연한 공향 지부에 노력상을 시상하였다. 특별히 "천지 창조"라는 제목으로 부친 와드가 준비한 관련 그림들은 아주 훌륭한 것이었다. □



대학교 내에서 신학연구원 수업이 처음으로 시작됨

한양 대학교에서는 지난 3월부터 말일성도 학생들의 교내활동이 비 정기적으로 진행되어오다가 지난 9월 15일부터 정기적인 LDS 학생 활동을 시작하였다.

학생들의 열의와 동신학원의 도움으로 2학기가 시작되면서 매주 화요일 오후 5시 반부터 신학 연구원 교과 과정을 시작하였고 신학원 수업이 끝난후 계속해서 LDS 학생 자체 모임을 갖고 있는데 토론회, 연사

초청, 가정의 밤 등 다채로운 활동을 실행하며 또 계획하고 있다. 대학에 교회의 복음을 알림과 교내의 말일성도 학생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이 한양 대학교의 LDS 학생 모임은 신학 연구원의 교과 과정이 처음으로 일반 대학교 내에 들어가 교회의 복음이 한국 내의 대학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만으로도 한국 교회사적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한편 서울 동신학원에서는 조 만구 형제가 한양 대학교에 와서 신약을 가르치고 있다. 이 모임의 회장에는 고 효선 형제, 부회장에는 안 영찬 형제, 최 윤희 자매, 서기에는 김 영락 형제가 수고하고 있다.

한양 대학교의 LDS 회원은 약 25명 정도가 있다. 사진 상단 좌로부터 도 부민(반포, 관현악 4), 김 영환(신길, 경영 3), 양 현원(대학원), 고 효선(신당, 전기 2), 장 화인(삼청, 대학원), 조 만구 형제, 정 용조(법학 3), 유 장철(미아, 국문 3), 최 은수(금호, 토목 2), 하단 좌로부터 김 영락(미아, 재료 1), 최 윤희(영동, 관광 2), 김 인태(상도, 건축 4), 황 문수(신당, 화학 3), 전 김해(신당, 관광 2) 형제와 이외에도 최 용미(태능, 영문 3), 안 영찬(법학 2), 최 은경(삼청, 작곡 1), 유 영길(신당, 전자 1), 유 경화(화양, 경영 2), 이 영진(성남, 영어 2), 김 수진(상계, 산업디자인 1) 등이 있다. 아직 알려지지 않은 회원이 있으면 유 장철 형제(922-9772)에게 연락하기 바라며 복음에 관심있는 분의 참석을 바란다. □

아시아 지역 회장단 성탄절 메시지



에드니 와이 야쿱 디야가 더글라스 에이치 스미스

성탄절은 참으로 한 해의 아름답고 훌륭한 절기이므로 우리는 기독교계와 더불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경축합니다. 성탄절은 한 해 동안 있었던 모든 행사 중에서 절정을 이루는 것이므로 연말에 있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속주, 구세주 및 우리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습니다. 우리가 불사불멸을 얻고 우리의 합당성에 따라 승명과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자신의 생명을 바치신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우리는 예언자를 통해 우리 주님의 실제 탄생일은 4월 6일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온 세상 사람들과 함께 12월 25일을 경축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탄생을 경축하여 경배하는 이외에도 현실적으로 파티가 범람하고 너무 상품화되어 가며, 거의 모든 면에서 도가 지나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성탄절기와 함께 오는 좋은 점들을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은 모두 더 행복하게 되고, 웃음뭉치 얼굴로 어디서나 “즐거운 성탄절이 되십시오!”라는 즐거운 인사말들을 나눕니다. 친구와 가족들이 함께 모여 선물과 즐거움을 나눕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핍한 자들을 찾고 불행한 사람들을 위로해 줍니다. 일 년 중 다른 어떤 때보다 12월 중에 더 많은 선물이 자선 단체에 전달됩니다. 어떤

면을 보든지 성탄절은 우리 모두에게 가장 훌륭한 것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좀더 용서하는 사람이 되며, 좀더 사랑하며, 좀더 사려깊은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늘의 거룩하신 분이 지상에 오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성탄절은 경배하고 기억을 되살리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성탄절 이야기는 아무리 자주 되풀이 된다 할지라도 결코 낡은 이야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매 절기마다 노래, 산문 및 연극으로 장엄하게 재창조됩니다. 성경 누가복음에 있는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악한 왕 헤롯 시대에 사가랴라 하는 제사장과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모두 하나님 앞에 의로왔으며 모든 계명과 의식을 준수했습니다. 엘리사벳은 자식이 없었고 그들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탄절은 경배하고 기억을 되살리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성탄절 이야기는 아무리 자주 되풀이 된다 할지라도 결코 낡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사가랴는 놀라며 무서워했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 특별한 아들에 관한 많은 약속들이 천사를 통해 그에게 주어진 후 사가랴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나는 하나님 앞에



교회 및 지역 소식

셨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이 일의 되는 날까지 네가 병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네가 믿지 아니함이여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가 성전에서 나와 말을 할 수 없게 되자 그들은 그가 시현을 받은 줄 알았습니다. 때가 되자 약속이 성취되어 엘리사벳은 아들을 낳았으며 그는 요한이라고 불렀습니다.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여섯째 달에 천사가 엘리사벳의 사촌인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천사의 말씀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찌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은 곧 있을 위대한 탄생에 관해 천사의 증거를 받고 나서 그녀와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의 뜻을 받아들였으며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하심 아들이 세상에 오시는 위대한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갔는데 이는 요셉이 다윗의 집 족속이었기 때문입니다. “거기 있을 그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만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났으며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취자 그들은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목자들은 급히 베들레헴에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를 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가서 이 아기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들이 듣고 본 모든 것들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드리고 찬송했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한 독생자의 놀라운 탄생에 관해 분명한 지식과 증거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

한국 선교사 훈련원 제 76 기 수료

한국 선교사 훈련원 제76기(1987년 3월 16일~25일)를 수료한 18명의 선교사들이 다음과 같이 임지에서 봉사 중이다. 괄호 안은 출신 와드 또는 지부의 이름이다.

김 도훈 장로(예성 지부) 부산 선교부
김 미경 자매(수정 와드) 서 선교부
이 정남 자매(상계1와드) 부산 선교부
김 성자 자매(노송 와드) 서울 선교부
최 미경 자매(신당 와드) 대전 선교부
정 선옥 자매(독산 지부) 부산 선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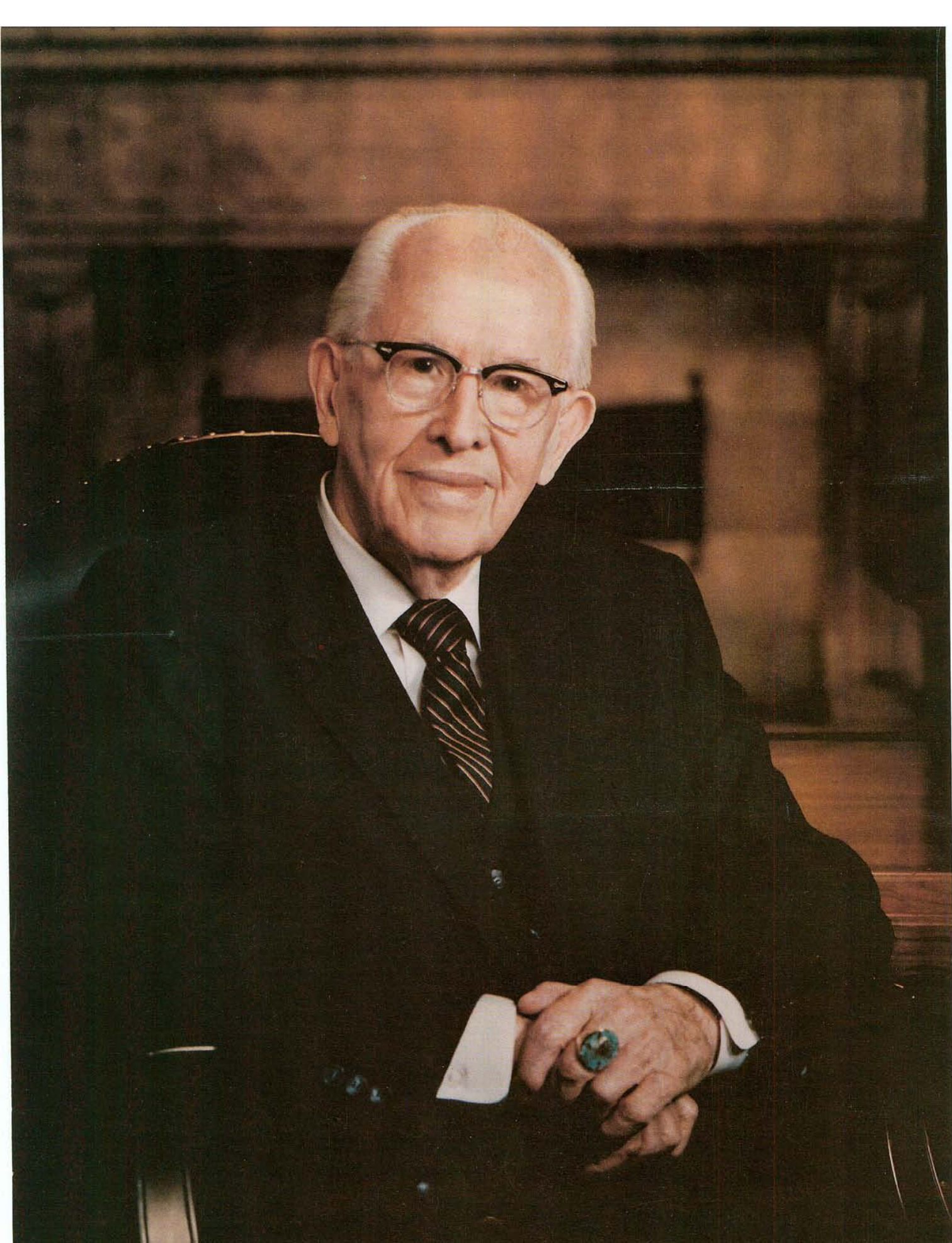
이 종실 자매(성남 중앙) 대전 선교부
전 미정 자매(번동 와드) 대전 선교부
박 미애 자매(유천 와드) 대전 선교부
이 종숙 자매(성남 중앙) 부산 선교부
윤 정규 장로(충장 와드) 서 선교부
최 성현 장로(춘천 와드) 부산 선교부
이 두현 장로(풍향 와드) 부산 선교부
최 석진 장로(춘천 와드) 대전 선교부
김 규태 장로(번동 와드) 대전 선교부
이 진석 장로(북대 와드) 대전 선교부
박 영철 장로(신정 와드) 서울 선교부
조 택규 장로(노송 와드) 서울 선교부 □

한국 선교사 훈련원 제 77 기 수료

한국 선교사 훈련원 제77기(1987년 4월 20일~29일)를 수료한 15명의 선교사들이 다음과 같이 임지에서 봉사하고 있다. 괄호 안은 출신 와드 또는 지부의 이름이다.

최 문영 장로(용현 와드) 부산 선교부
박 성민 장로(정주 지부) 대전 선교부
최 기수 장로(안양 와드) 부산 선교부
류 석호 장로(부평 와드) 부산 선교부
권 대엽 장로(진주 와드) 서 선교부
고 덕우 장로(유천 와드) 대전 선교부
박 성구 장로(진주 와드) 서 선교부
박 향 자매(마산 와드) 서 선교부
이 정수 자매(상도 와드) 부산 선교부
백 미영 자매(성남 와드) 대전 선교부
허 미애 자매(잠실 와드) 대전 선교부
최 복연 자매(개봉 와드) 서울 선교부
백 영란 자매(군산 와드) 서울 선교부
김 영균 자매(마포 와드) 대전 선교부
김 영삼 자매(태백 지부) 대전 선교부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1988

1

日	月	火	水	木	金	土
					1 신정	2
3	4	5	6	7	8	9 11-20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31	25	26	27	28 12-10	29	30

2

日	月	火	水	木	金	土
		1	2	3	4	5
7 12-20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민속의날	19	20
21	22	23	24	25	26	27 1-10
28	29					

3

日	月	火	水	木	金	土
			1 삼일절	2	3	4
6	7	8 1-20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2-1	19
20	21	22	23	24	25	26
27 2-10	28	29	30	31		

4

日	月	火	水	木	金	土
					1	2
3	4	5 식목일	6 2-20	7	8	9
10	11	12	13	14	15	16 3-1
17	18	19	20	21	22	23
24 3-10	25	26	27	28	29	30

5

日	月	火	水	木	金	土
1	2	3	4	5 어린이날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석가탄신일	24	25	26	27	28
29	30	31				

6

日	月	火	水	木	金	土
				1	2	3
						4 4-20
5	6 현충일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7

日	月	火	水	木	金	土
					1	2
3 5-20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제헌절	25	26	27	28	29	20

8

日	月	火	水	木	金	土
		1	2 6-20	3	4	5
7	8	9	10	11	12	13
14	15 광복절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7-20			

9

日	月	火	水	木	金	土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0

日	月	火	水	木	金	土
					1 국군의날	
2	3 개천절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11

日	月	火	水	木	金	土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2

日	月	火	水	木	金	土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교회 및 지역 소식

아시아 지역 회장단의 제2 보좌로 부름받은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더글라스 에이치 스미스 장로



더글라스 에이치 스미스 장로

“나는 야콥 디야가 회장님과 애드니 고마즈 회장님과 함께 아시아 지역 회장단으로 봉사하라는 부름을 통보받은 때보다 더 놀라고 흥분된 적은 없었습니다.”라고 더글라스 에이치 스미스 회장은 말했다. “이 훌륭한 백성들을 위해 봉사하도록 부름받으리라고는 생각조차 못해 보았습니다.”

더글라스 에이치 스미스 회장은 1921년 5월 11일에 버지 하워드 스미스와 위니프레드 퍼얼 힐 스미스의 둘째 아들로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출생했다.

“우리는 교회에 봉사하며 생활해 왔습니다. 부친은 와드 감독단, 고등 평의원, 스테이크 부장단 보좌 및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리버티 스테이크 부장으로 봉사하셨습니다.”

스미스 회장은 어린 시절을 소년단 활동, 아버지와 함께 낚시하기, 가족 야영, 야구, 농구, 테니스 등과 같은 운동을 하며 보냈다. 그의 부모는 딸은 없고 아들만 셋 두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들들과 함께 남자 아이들

활동에 참여했었다.

스미스 회장은 가정에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는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대로 생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교회와 지도자들에게 오랫동안 헌신해 오므로써 그의 생애에서 그 가르침에 대한 모범이 되어 왔다. 그는 와드 감독단 보좌, 감독, 고등 평의원, 스테이크 부장단 보좌 및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힐사이드 스테이크 부장 그리고 지역 대표로 9년 동안 봉사했었다.

사업 경력으로 스미스 회장은 유타 가정 화재 보험 회사 및 메니피셀 생명 보험 회사의 사장으로, 그리고 다른 많은 보험 회사의 이사장을 역임했다. 그는 9년 동안 엘디에스 병원 간사회 위원장 및 벨리 포지 프리덤 재단, 미국 암 협회 및 미국 소년단 임원회의 임원으로 봉사했다.

벤슨 대관장이 그를 칠십인 제일 정원회에 불렀을 때, 스미스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오래 전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결혼했을 때 아내와 저는 어떠한 직책에 부름을 받든지 주님께 봉사하리라 약속했습니다. 이제 주님의 예언자이신 대관장님께서 제게 이 부름을 주시니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봉사하겠습니다.”

스미스 회장 부처는 3남 4녀를 두었으며, 36명의 손자녀가 있는데 1988년 초에 두 명을 더 보게 된다. 그는 1941년 6월 유타 대학을 졸업했다. □

한국 선교사 훈련원 제 78 기 수료

한국 선교사 훈련원 제78기(1987년 5월 18일~27일)를 수료한 10명의 선교사들이 다음과 같이 임지에서 봉사하고 있다. 팔호 안은 출신 와드 또는 지부의 이름이다.
어 명희 자매(상당 와드) 부산 선교부

김 혜경 자매(진해 와드) 대전 선교부
이 혜경 자매(강서 와드) 대전 선교부
최 미경 자매(마포 와드) 대전 선교부
김 인구 장로(상계2와드) 서울 선교부
김 선미 자매(수원 와드) 대전 선교부
주 금숙 자매(신당 와드) 대전 선교부
윤 현송 자매(진해 와드) 서울 선교부
서 순영 자매(진해 와드) 서울 선교부
류 찬 장로(화양 와드)부산선교부□



한국 선교사 훈련원 제 79 기 수료

한국 선교사 훈련원 제79기(1987년 6월 15일~24일)를 수료한 6명의 선교사들이 다음과 같이 임지에서 봉사하고 있다. 팔호 안은 출신 와드 또는 지부의 이름이다.

김 태석 장로(역곡 지부) 대전 선교부
이 경희 자매(역곡 지부) 부산 선교부
정 경옥 자매(부천 와드) 부산 선교부
이 은정 자매(충정 와드) 부산 선교부
김 영신 자매(신정 와드) 서울 선교부
오 옥세 장로(광안 와드)서울선교부□



교회 및 지역 소식

성도의 빛에서 해답을 얻음



인천 스테이크 부평 와드
최 옥련 자매

흔히 침례를 받은 후라든지 다른 와드나 지부로 이사를 가게 되면 새로운 각오와 기대감을 갖게 되며 그와 동시에 과거에 대한 향수와 현재의 처지로 인해 적적함을 느끼게도 됩니다.

모두가 서로에게 관심을 보이고 싶어하면서도 실천을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을 느끼며 새로운 회원이 비활동화되어 우리의 결을 떠나는 것을 그저 바라보고 가슴아파할 때도 있습니다.

모르는 타인이거나 미운 사람에게 예수님과 같은 사랑으로 대하기엔 우리는 너무도 부족함을 느낍니다.

내가 먼저 밝은 미소로 대하고 활동을 한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바라는 마음보다는 주고 싶은 마음이 싹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소원에 대하여 경전이나 성신을 통하여 혹은 현대의 살아 계신 예언자나 교회 지도자 등 많은 경로를 통하여 응답을 주신다는 것을 간증드리며, 또한 성도의 빛에도 우리가 당면한 문제의 해결책이 들어있음을 간증드립니다.

저의 경우에 전에는 성도의 빛을 받게되면 예언자의 말씀보다는 흥미로운 지역 소식만 찾아 읽고 나머지는 읽지 않은 채 그대로 책꽂이에 꽂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의 간증이 하나 둘

커가면서 성도의 빛의 중요성을 점차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한 가지 예로서 교회에 새로 들어온 회원이 세상적으로 좋은 모든 것을 멀리한 채 교회에 참석하여, 부름받고 직책을 맡아 열심히 활동하려 할 때, 그를 도와 주고 격려해야 할 회원이 그에게 부족한 단점을 들추어 거부 반응을 나타낸다면 얼마나 실망이 크겠습니까?

누구나 인정을 받고 싶어하지만 교회에 새로 들어왔거나 다른 와드에서 온 형제 자매님들 만큼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이 갈등에 대하여 좀더 그 회원을 향한 관심이 있어도 밖으로 표현치 못하는 우리의 무뎌짐과 어디에 숨어 있을 교만함이 깃든 덧새 등을 지워 달라고 기도하던 중, 9월호 성도의 빛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대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우리의 관심을 얻기를 바라는 회원들이 우리의 기분을 상하게 하더라도 구도자에게 쏟는 관심 정도의 큰 관심을 보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읽고 느끼는 바가 있었습니다.

성도의 빛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 예언자를 통하여 주시는, 우리의 삶의 지표에 대한 메시지라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제가 “출세했다”고들 진담 반 농담 반으로 말씀하십니다.

그저 소박하게만 살아가던 부여의 농촌 소녀가 책으로만 보았던 문명을 누리며, 진실된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되었고, 유명 인사마냥 여러 모임을 통해 여러분과 인사도 나누고 우정을 주고 받는다고 말합니다. 저 또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열심히 “출세의 가도”를 달려 훌륭한 동반자를 만나 하나님의 왕국까지 가는 “출세”를 하고 싶습니다.

1982년 10월 3일, 저는 두번째의 탄생이라는 제목하에 그날을

영광스럽게 일지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 당시 공부 때문에 대전에 올라와 자취하면서 교회를 처음 본 순간 누구 집인지 참 훌륭하게 지었다는 생각만하고 무심히 지나다니던 1년 후 저는 그곳에 친구의 안내로 발을 디게 되었습니다.

당시 교인이라 자칭하면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많은 매스컴의 사건들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보도, 너무도 이기적인 사람들을 주위에서 많이 보아 왔기 때문에 그다지 교회에 대한 관심이 적었고, 오히려 불교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또한 집안에서까지도 친척들이 기독교를 믿은 후 우상숭배란 이유로 차례 지내는 것을 회피하고 친목다지는 모임도 불성실하게 만드는 것을 보고 더욱 조상 숭배를 들먹여 불교를 고집하셨습니다.

저 또한 부모님과 같은 생각이었으나 세월이 약이듯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진정한 신을 찾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하던 중 우리 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많은 진리와 일상 생활의 방편이 마련되어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교회에서 배운 것들을 다른 모임에서도 훌륭하게 활용하여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중심의 활동이 더욱 우리의 신앙을 강화시키며 화평이 깃든 가정의 행복으로 이끈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그래서 어느덧 저의 소망 중 하나는 물론 가정을 만들고 싶은 것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이 교회는 말일에 회복된 참된 교회이며,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자를 통하여 전해지는 교회임을 간증드립니다. □

공지 사항

교회 대판장단은 지난 9월 18일자로 계보과 (The Genealogical Department) 의 명칭이 가족 역사과 (The Family History Department) 로 바뀌게 된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아래 용어도 변경되었다.

- 와드 성전 및 계보 상담자(대제사 그름 지도자)→ 와드 성전 및 가족 역사 상담자
- 스테이크 성전 및 계보 고문(고등 평의원)→ 스테이크 성전 및 가족 역사 고문

교회 및 지역 소식



서울 지역 대회를 마치고

고 원용 형제

“서울 지역 대회가 1987년 9월 12일, 13일에 서울 지역과 서울 서 지역에 속한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귀절은 많은 성도들의 개인 기록에 적혀 있을 내용이다.

서울 지역 대회! — 이 말에 대한 여러 가지 느낌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힐튼 호텔 대회장에 모였던 5천여 명의 성도들, 장소가 협소하여 지하층 그랜드 볼룸에서 비디오 스크린을 통하여 대회 광경을 지켜보았던 성도들, 거기도 팔차서 아이들을 데리고 복도에 서서 귀를 기울였던 성도들, 이들은 모두 다시 한번 말일에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듣는 계시의 말씀으로 그들의 신앙과 간증이 더욱 굳건하여짐을 느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예언자를 보내시어 적절한 가르침을 주시므로써, 우리들에게 사랑을 보여 주심을 믿고 있는 말일성도들은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님과 총관리 역원을 모신 이 지역 대회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회복하여 주신 위대한 교회에 속하고 있다는 커다란 자부심을 느꼈을 것이다.

서울 지역 대회!

9월 12, 13 양일간에는 일반

성도들을 위한 모임이 있었고 9월 11일 저녁 7시 하이얏트 호텔 2층 튜링룸에서는 전야제라고 할 수 있는 만찬회가 사회 저명 인사를 초청한 가운데 열렸다. 총관리 역원 부부들은 우리 교회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그동안 여러 기회를 통하여 교회와 관계를 가지고, 협조하여 주신 인사들과 정다운 시간을 나누었다. 초청 인사들 중에는 유 창순 전 국무총리, 태 완선 전 부총리, 이 재환 국회 사무총장, 김 태호 민정당 사무장, 이 태규 박사, 이 성순 교수, 최 장석 선생 등 여러분들의 부부동반한 모습들이 보였으며, 함께 참석한 지역 대표, 스테이크 부장단, 선교부장단, 기타 초청된 교회 지도자 부부들과도 우정을 나누었다.

최 육환 준비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모임에서는 서울 지역 포스타 공모전에서 당선한 이 회경 자매에 대한 시상으로 힝클리 부대관장님에 의하여 상패가 수여되었고, 박 관수, 도 부민 형제의 피아노와 첼로 2중주, 조 주은 자매의 독창(반주: 박 관수 형제)이 있은 후 힝클리 부대관장님은 참석한 초청 인사들에게 각별한 감사의 말씀과 우리나라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말씀하시며, 한국에 대한 사랑과 국가와 민족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전해 주셨다.

이들 초청 인사들에게 선물로 주어진 부모 지도서, 가정의 밤 교재, 성도의 벗 그리고 지역 대회 팸플렛은 이들에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믿고 따르는 높은 표준과 이상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다.

서울 지역 대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대회를 위하여 준비하였는가! 부대관장님의 눈시울을 적시게 했던 300명의 합창단, 이를 지휘한 허 병석, 조 봉현 형제, 반주를 맡았던 박 관수 형제, 이 회경, 김 순복 자매, 지역 대회 역사상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었던 챔버 오케스트라의 반주. 이들은 이 대회를 위하여 소속 스테이크에서, 신당 와드에서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였던가! 이들의 희생적인 준비로 대회에 참석한 성도들은 아름다운 찬송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영광을 드릴 수 있는가를 느꼈다. 대회 날 아침 8시부터 동 스테이크와 서 스테이크에서 선발된 안내자들은 대회장으로 와서, 이미 연습한 대로 각기 장소에 배치되어 성도들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었다. 경호를 맡은 인천 스테이크 회원들도 마찬가지였다. 누구나 다 대회장 안에서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만 이들은 대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며, 듣기보다 실천으로써 이 대회에서 더 많은 것을 느꼈을 것이다. 대회장 시설을 위하여 토요일 오후부터 밤을

초청한 귀빈들과 인사 나누는 힝클리 부대관장



교회 및 지역 소식



상패와 상금을 수상하는 이 회경 자매

새운 박 중식 형제와 영동 스테이크 회원들, 꽃장식을 위하여 수고한 조 정순 자매, 대회 소식을 알리기 위하여 언론 기관을 함께 방문하여 주신 최 옥환 장로, 구 중식 형제, 그리고 공보 위원 여러분, 통역으로 수고한 한 인상 장로, 한 민근 형제 그리고 한국말을 통역하여 준 선교사들 공향에서 통관을 도와 주었던 돌프 형제, 대회 기간 내내 사진 촬영을 위하여 수고한 신 재구 형제와 정 기만 형제 그 밖에 일일이 이름을 들 수 없으나 보이지 않는 뒷전에서 성공적인 대회를 위하여 헌신하여 준 많은 성도들...

이 많은 분들은 아름답게 지어진 서울 지역 대회라는 건물의 한 부분을 담당하였다는 보람을 느끼며 이 기회를 감사하고 있을 것이다.

서울 지역 대회!

지역 대회 준비는 개최 일정이 통보되는 근 일 년 전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총괄하기 위하여 지역 대회 준비 위원회가 금년 2월에 구성되었다. 최 옥환 서울 서 지역 대표가 준비 위원장으로 부름을 받았고, 부위원장에 김 창선 서울 지역 대표와 한 인상 교회 관리 본부 대표, 고문에 박 병규 부산/광주 지역 대표, 각 분과 위원장으로 박 재암(후에 김택우) 영동 스테이크 부장(시설), 손승은 동대문 스테이크 부장(교통), 허채(후에 홍 유남) 인천 스테이크 부장(경호), 최 동현 서 스테이크 부장, 김 병희 동 스테이크 부장(음악), 박 내정 강서 스테이크 부장(공보) 그리고 김 용일 서울 스테이크 부장(재정) 등이 부름을 받았다. 각기 지역과 스테이크를

위하여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며 모든 준비 사항을 확인하고, 분과별로 협조 사항을 의논하였으며, 대회 기간 중에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분과별 준비 위원들을 독려하며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대회 당일 단상에 앉아 있던 이들 지도자들의 마음 속에는 이처럼 훌륭한 대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께 일하였다는 형제애속에 커다란 자부심과 긍지를 느꼈을 것이다.

서울 지역 대회!

대회는 무사히 끝났다. 큰 모임을 치른 뒤의 느낌은 차라리 답답하다. 어쩌면 그 느낌을 느끼기 까지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한 지도 모르겠다. 준비 위원회의 집행 서기로서, 공보 담당으로, 통역자로서 대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하는 데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은 커다란 축복이 아닐 수 없다. 신권 지도자들을 모시고, 교회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일하는 것은 언제나 즐거운 일이다.

대회에 참석한 총관리 역원들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칭찬으로 이 대회를 고마와하셨다. 한국 성도들의 능력과 자질을 보고 감탄하셨다. 힐클리 부대관장님은 최 옥환 준비 위원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대회 준비를 위하여 보여 준 모든 훌륭한 일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모든 점 하나하나가 질서있게 이루어졌습니다. 사회 저명 인사를 초청한 만찬회는 훌륭하였습니다."



서울 지역 대회 준비 위원장 최 옥환 장로

지역 대회는 참으로

영감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하신 이 많은 일들에 대하여 단지 감사합니다라는 말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그의 느낌을 전해 주셨다.

말일에 예언자를 주시고, 그분을 가까이 뵈 수 있고, 그분의 한국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러한 모임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 또한 감사하며, 앞으로 또 이러한 대회가 주어진다면 더욱 열심히 준비할 것을 다짐하는 마음들이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한결같은 생각이리라 믿는다. 이 땅에 복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린다.

고 원용 형제는 87년 지역 대회 준비 위원회의 집행 서기, 공보 담당 및 통역자로 봉사하였다.

리셉션 모임에서 노래하고 반주하는 형제 자매

꽃을 준비하는 자매님들

